제7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1일)

일본 갑주의 보존

박승원, 310호 일본실 18:00~18:30

갑주甲冑는 몸에 입는 갑옷과 머리에 쓰는 투구를 말하며 전쟁터가 주무대가 되는 무사들에게 공복公服입니다. 무사계급이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일본의 경우, 무사복식은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화려하게 단장되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무사의 위용과 함께 적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갑주는 도마루 갑주(胴丸具足)로 9세기경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개인 방호구로 착용한 통처럼 둥글게 만든 간편한 갑옷의 하나입니다. 길고 좁고 얇은 직사각형 판자 모양의 철편이나 단단하게 다진 가죽 조각인 고자네(小札)를 가죽끈으로 하나하나 이어서 만든 화려한 갑옷입니다. 고자네(小札]는 길고 좁고 얇은 직사각형 모양의 철편이나 단단하게 다진 가죽 조각을 가죽끈으로 하나하나 잇고 녹 방지와 장식효과를 위해 표면에 옻칠을 하였으며 연결 가죽끈에도 채색을 하여 위세를 보이려 하였습니다. 상반신은 옆에서 묶도록 되어 있고 허리 아래 부분은 폭을 넓게 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도록 하여 활동에 편의를 주었습니다. 별도의 정강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갑주는 일반적으로 금속, 직물, 가죽, 목제 등이 결합된 복합재질의 문화재입니다. 주로 직물 부분의 손상이 심하여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보존처리가 진행됩니다. 국소습열처리방법(preservation steaming & misting)으로 흐트러진 섬유올을 잡아주고 구김과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손상부분은 염색한 보존섬유(crepeline)로 수리하고 외부 마찰로부터 보호하며 원형을 회복합니다.

그림1. 일본 갑주

그림2. 어깨 가리개의 보존처리 전(上左)과 보존처리 후(上右) 직물 조직(下左)과 장식용 엮음 직물의 현미경 확대(下中,右)

제7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1일)

고려청자의 장식기법

서유리, 303호 청자실 18:00~18:30

고려(918~1392)는 찬란한 공예품을 탄생시키고 향유했던 왕조로, 무엇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의 한 종류인 청자를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0세기 후반경 탄생한 청자는 아름다운 색과 다양한 장식으로 다채로운 한국의 자기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12세기 이후, 강진과 부안의 가마에서 청자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며 비색翡色청자와 다양한 상형象形청자, 흑과 백의 대비가 뛰어난 상감象嵌청자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은 1124년 저술한『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산예출향 역시 비색翡色이다.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사자 모양의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연꽃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절精絶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越州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와 대체로 유사하다." 라고 비색청자와 상형청자를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청자의 꾸밈에는 음각·양각·투각·상형·상감·철화·동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철화청자는 산화철 성분의 안료로 무늬를 그린 청자입니다. 주로 산화염으로 번조되어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는 예가 많습니다. 갈색을 띠는 조질의 철화청자들은 해남 진산리 등에서 생산되었고, 고려 중기 최고급 청자를 생산한 강진 사당리에서는 세밀하고 정결한 무늬가 돋보이는 철화청자가 제작되어 수요에 따른 질적인 차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화청자銅畵靑瓷는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려 구웠습니다. 번조 조건에 따라 녹색, 붉은색 등 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리는 높은 온도에서 증발되기 때문에 고려청자의 붉은색 표현은 뛰어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상감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상감기법은 세계 도자기 역사상 고려가 이룬 뛰어난 세계를 구축한 부분입니다. 12~13세기, 왕실 청자를 생산한 강진 사당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청자편들이 발견되어 생산지를 알 수 있으며, 세련되고 화려한 귀족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가 탄생시킨 청자는 아름다운 형태와 비색, 다양한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림1.
청자과형병
높이 22.7cm

그림2.
청자사자형향로
높이 21.2cm

그림3.청자상감동채모란문매병
높이 34.5cm

그림4.청자철화화훼문매병
높이 28.6cm

그림5.청자상감운학문매병
높이 30.0cm

제7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1일)

근대 문예인,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허문행, 서화실 202-4·5호 19:00~19:30

위창 오세창(1864~1953)은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이자, 우리 서화의 수집·감식·연구에 힘쓴 문예인文藝人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세창 서거 7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근대기 다양한 이력을 가지다

오세창은 1864년 역관譯官 오경석吳慶錫(1831~1879)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업을 이어 16세에 한어(중국어) 역관이 되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언론인이 되어 애국·계몽 운동을 후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세창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했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서예가 오세창의 필적을 들여다 보다

오세창은 오경석이 수집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서법書法을 익혀 독창적인 필체를 선보인 당대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기와나 청동기 등 옛 기물에 새겨진 글과 그림을 임모하고 예서와 행서로 내용과 설명을 적었으며, 직접 새긴 인장을 찍는 '종정와전임모도鐘鼎瓦塼臨摸圖'의 전형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상형고문象形古文이나 오세창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로 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서화를 연구하고 감식하다.

오세창은 수집한 우리 서화를 정리·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근역서휘槿域書彙』, 『근역석묵槿墨石墨』, 『근역서화징槿域書畫史』 등을 편찬했습니다. 그의 서화 연구는 선조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물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민족의 유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오세창은 뛰어난 감식안으로 서화를 분석한 글을 남겨 후대 사람들이 그 내력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세창은 격변의 시기 민족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 힘썼으며, 우리 서화 연구에 힘쓰고 옛 것을 본받고 고증해 세상에 알리고자 한 문예인이었습니다. 오세창의 손길이 남아있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문예인 오세창의 모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림1. 오세창, <상형문자로 쓴「어 · 거 · 주」>, 1929년, 종이에 먹, 증7014,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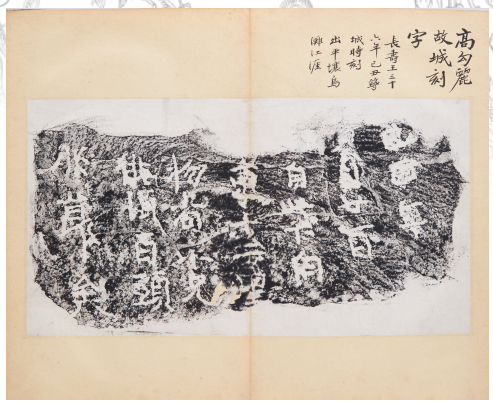

그림2. 오세창 편집, <고구려 각자성석>, 《근역석묵》, 20세기, 종이에 먹, 구5321

제7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1일)

말갖춤으로 보는 가야 문화

김혁중, 104호 가야실 19:00~19:30

수준 높은 말갖춤(馬具) 제작기술을 가졌던 가야에서는 물건과 사람을 운반하는 기능 이외에 사회적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말은 화려한 마구를 갖추면서 점차 말 탄 사람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거나 치열했던 전쟁에서는 기동력과 위압감으로 말에 갑옷을 씌워 전쟁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말은 소중한 자원으로 인간의 안식과 평화를 줄 목적으로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은 가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아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같이한 동반자였습니다.

가야의 말갖춤은 세부 기능에 따라 제어구, 안정구, 고정구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말갖춤에서 장식이 확인됩니다. 안정구에 해당하는 안장과 발걸이는 문양이 가미되거나 재질의 변화를 통해 장식성이 가미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고정구는 장식을 고려하여 별도의 마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말띠드리개, 방울, 말띠꾸미개가 대표적으로 말을 다루거나 제어하기 위한 다른 기능은 없으며, 오로지 장식만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장식용 말갖춤은 말띠꾸미개와 말띠드리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띠꾸미개는 운주, 십금구, 장식금구를 통칭하며 굴레, 가슴걸이, 후걸이의 교차점을 고정 및 연결하거나 끈 위에 박아서 장식하는 말갖춤입니다. 삼계는 안장과 재갈을 연결하는 끈을 통칭해 부르는 것으로 말의 머리에 돌린 끈을 면계(굴레), 가슴은 흉계(가슴걸이), 엉덩이 부위는 고계(후걸이)로 구분됩니다.

1. 말띠 꾸미개

말띠 꾸미개는 삼계 중에서 가죽끈이 교차되는 곳에 장식한 금구金具로 말을 제어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식성으로 말을 소유한 사람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여러 줄의 가죽끈을 서로 묶거나 말띠 꾸미개 자체에 문양을 새기거나 금동으로 재질을 달리하여 장식합니다. 말띠 꾸미개는 형태에 따라서 환형, 판형, 반구형, 보요부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환형운주는 가야에서 전 시기 걸쳐 유행하며 장식이 없어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 말띠 드리개

말띠 드리개는 굴레, 가슴걸이, 후걸이의 끈에 매달아 장식하는 마구입니다. 말띠 드리개의 평면 형태에 따라서 심엽형, 편원어미형(타원형과 물고기꼬리모양), 검릉형(칼끝모양), 자엽형(나뭇잎모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말띠 드리개의 평면모양을 통해 지역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내부의 문양도 말띠 드리개가 변화한 모습과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검릉형은 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던 특징적인 말띠 드리개로 특정 말갖춤인 f자형 판비와 조

합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라는 편원어미형 말띠드리개를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3. 방울

말방울은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울의 형태는 둥글거나 타원을 띠는 것, 종과 유사한 것,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의 방울을 제외하고는 방울 몸통 상부에 매달기 위한 고리로 뉴紐가 달려있습니다. 방울이 달린 위치는 대개 말의 가슴걸이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리 모양의 방울은 둥근 고리의 바깥에 방울을 3~4개를 붙인 것으로 후걸이의 가죽 끈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도 사용되어 다른 방울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신라 말갖춤과 가야 말갖춤의 관계

신라는 4세기말 이후 말갖춤에 귀금속 장식이 가미되었는데, 이를 장식용 말갖춤이라 합니다. 금빛과 비단벌레로 장식한 신라의 말갖춤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말갖춤이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입니다.

가야는 4세기말에서 5세기 초, 신라의 영향으로 환판비, 발걸이, 말띠 드리개 등이 출현하면서 새롭게 대가야의 말갖춤이 시작됩니다. 5세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말갖춤을 부장하는 무덤이 증가하고 말갖춤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중에서 창녕지역은 신라와 가야 말갖춤 사이에서 장식용 말갖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대가야 말갖춤(고령 지산동 고분군 출토)